

격려사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양묘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한국양묘협회지 제34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발간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 조림용 묘목을 차질 없이 생산하여 산림자원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신 회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산림정책을 돌아보면 45년간 이어온 산림법을 폐지하고 산림기본법을 축으로 하여 전문화된 12개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였으며, 산림정책영역을 도시숲·가로수, 산림휴양·등산 등으로 확대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대 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팀제 도입 등 조직·인사제도 쇄신을 통해 산림행정 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도에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마무리와 제5차 기본계획의 준비, 대형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 산림경영여건 개선과 산주의 소득향상, 산림문화·휴양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산림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게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산림자원조성 분야에서는 맞춤형 산림지도의 제작, 유휴 토지 조림계획 수립, 조림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준비 이행, 식물신품종보호 업무 추진방향 정립 등 최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자원조성 기반 마련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림과 종·묘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중장기 수종별 조림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림자원조성의 근간이 되는 우량 종·묘의 생산·수급을 위해 채종원 등 우량 종자공급원의 확충과 산지증명제의 정착, 엄격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한 품질제고 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묘목생산자 여러분께서 열의와 긍지를 갖고 검증된 종자를 확보하여, 묘목생산에 적합한 포지에서 시업, 시비·관수 등의 묘목생산 과정에서 가일층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양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량 포지보유자를 우선하여 간이온실 및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과 양묘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 등 묘목생산 여건이 악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업방법 개선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조림역사와 함께한 본 협회지가 양묘사업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기술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귀 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산림청장 서 승 진